

# 이 시대 建築士들의 獨白(續)

— 建築士 國家考試를 中心으로 —

崔昌奎 / 건축사사무소 신진  
by Choi, Chang-Kyu

“

連帶의 명제는 공동의 운명을 가진 집단엔 더 없이 중요한 말이다. 폴란드의 노사지도자 레프 바웬사의 Solitarinosk(連帶)는 공동운명의 폴란드노무자를 구해 내는 유일한 힘인 것이다.

우린 그 엄청난 무서웠던 시대에도 李承晩의 하야를 직언한 용기를 가진 일이 있었다.

대권을 거머쥔 자가 국민앞에 자존과 자율과 공평을 선언한 이 마당에 우리 건축사들은 건축사란 타이틀을 취득하는 제도인 建築士國家考試의 전 업무와 권한을 建築界에 돌려주고 우리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라는 외침을 왜 못할 것인가?

”

우리나라는 法治國家라고들 하지만 그 법들이 입법정신이나 취지에 정반대로 작용하는 때가 많아 한심스럽다. 필요에 따라서 변조할 수 있게 단서를 달아 놓는다든지 특자나 特別자를 붙여 자유자재로 어떤 特定側에 유리, 편리하게 되어 있는 느낌이 드는 점이 허다하니 법의 존엄성이나 권위, 실효는 어찌될 것인가. 특히 분개해 마지 않는 것은 공무원 위주, 공무원 우선, 공무원 우대라는 점인데 머슴이 주인을 감시하고, 처벌하고 통제한다면 그집은 망한다는 것은 옛부터 이어져오는 이야기이다. 머슴이 주인 위에 군림하고 평평하다면 그것은 民主化가 아니다. 때문에 우린 얼마나 긴 세월 대가를 치르면서 민주화를 외쳤던가 말이다. 이제 겨우 그 일부가 성취되어 국민의 합의로 總選이 끝나고 오늘은 正統性을 찾는 새대통령의 취임식을 가진 뜻깊은 날인 것이다.

범람하는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퇴폐된 법들, 또 이런 법을 들먹이는 관료주의나 관리행정직들의 월권과 횡포는 서서히 사라져가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그 殘滓가 건축직 공무원들에게 남아있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고시를 면제해주고 建築士免許를 주겠다는 特惠의 發想을 낸 부처가 어디이며, 이런 발상을 한 공무원이 누구인가를 찾아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국가고시를 면제 받을 건축직 공무원들은 무슨 공로가 있기에 뻔뻔스럽고 무식하고 몰상식하게, 후안무취하게 그런 記案이 나오는지? 또 그런 기안을 決裁하는 고위공무원(무슨무슨官이란 이름이 붙어 있는)이 어떤 공로나 권한으로 결재할 수 있는가. 무식한 소견으로는 국가란, 정치란, 행정이란 국소수의 공무원을 위한 것이고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나 국가나 사회를 위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느껴진다. 국토를 방위한다는 전문적인, 고등훈련과 교육을 받은 陸士출신이 어찌 軍務가 아닌 관리행정직이나 관공서에 자리잡고 있는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우리들의 조국이면서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렇게 허다하니, 하물며 외국인의 눈에야 어떻게 비칠까, 부끄러움을 느낀다. 필자는 언젠가 유럽여행중 서독에 들렀을 때, 마침 고국에선 계엄령이 선포되고 계엄사령관에 鄭모장군이 임명됐고 계엄군이 진주했는데, 계엄령하의 계엄사령관이 체포되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서독의 한 건축가가 나에게 말하기를 “너희 나라는 어찌된 나라냐? 계엄령하에 계엄사령관이 체포될 수 있느냐. 또 그를 체포하는 자들은 또 무엇이나?”라고 질문을 받고 얼굴 붉힌 기억이 난다.

“이 질문의 답이 있거든 알려주세요.” 여하간 이런 이야기들은 과거라는 흘러간 시간대 속에 들어가 버린, 되찾을 수 없는 일들이다. 때문에 새대통령은 과거를 깨끗이 망각의 광장에 묻어 버리고 희망과 행복과 자유와 평등으로 매진하고자 선언하지 않았던가. 유행가는 아니지만 과거를 묻지 말고, 建築士國家考試를 건설부에서 문교부든지 建築三團體에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맡기든지 해야 할 것이며, 공무원에게 考試免除나 형식적인 科目縮小등의 특혜를 준다면 그 다음에 일어날 사회적 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建設部가 져야 할 것이다. 현재 건축사협회의 항거의 소리가 부드럽고 유순하다고 우습게 본다면 큰 오산이다. 건축사협회원중에는 공무원 출신이 상당수가 있다. 그들의 심정은 어떠할까. 관직에 있을 때와 건축사로 있는 현재와는 그들 나름대로 비교해 보고 있는 것이고 판의 내막이나 계통을 잘 아는 그들이지만, 또 안면이 익숙한, 한때는 상사요 부하인 공무원들과 접촉에서 허무 같은 것을 느끼고 있지나 않을까 생각이 든다.

우린 이때까지 겁먹고 살아왔다. 하고 싶은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달라진다. 文化部의 신설이 거의 확실해지고 있다. 건축이 기술이나 예술이냐의 논란 이전에 창작이라고 한다면(물론 복합적인 면이 있고 타문화분야와는 다른 특성이 있다는 것을

◆  
崔昌奎

필자는 17년 환경납도생으로 동경홍야고등공업학교 건축과를 졸업, 72년에는 한국건축가협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건축사사무소 신진 차장.

建築士國家考試를 건설부에서 문교부든지

建築三團體에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맡기든지 해야 할 것이며, 공무원에게

考試免除나 형식적인 科目縮小등의 특혜를

준다면 그 다음에 일어날 사회적 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建設部가 져야할 것이다.

건축사협회의 항거의 소리가 부드럽고

유순하다고 우습게 본다면 큰 오산이다.

전제로 해서라도) 문화부 관하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施工分野가 엄연히 건설부라면 設計와 施工의 分掌管理도 시도해 볼만한 제안으로 부상될 줄 안다. 거듭 말하지만 동구 공산권국가나 구미제국의 여행에서 크게 느낀 것은 建築科가 공과대학에 속해 있지 않고 독립된 건축대학이거나 미술대학에 속해 있는 것을 보고 놀란 일이 있다. 물론 우리 학계에서도 몇년전부터 몇몇 학교에 건축공학과와 건축미술과를 공존시켜서 시범적으로 그 성과를 조사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건축은 공과라고 규정짓고 있는 듯하다. 근자에 와선 醫學에서 구조적인 계통만 있으면 모두 工學이라고 하는 경향이긴 하다. 생명공학, 유전공학 등등 모든 학문에 공학을 붙일 순 있을 것이나 우리가 말하는 건축학은 그 특성이나 종합성이나 다양성이 판이하므로 독립된 建築大學이 가장 타당할 것 같다. (北歐제국이 그러했다) 우리 속담에 우는 아이가 젖 얻어 먹는다는 말이 있다. 우리도 새로 세상이 시작되고 言路도 서서히 열려나가니 우리의 주장을 외치고 울어야만 한다. 울어야만 무시 당하지 않고 찾아 먹을 것을 찾아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건축사협회는 건설부의 Field Office 같은 느낌이 날 정도로 예속되어 있었다. 特別法人이라는 허울 좋은 법인체로서 우리의 自尊을 위해서도 사사건건을 건설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적 상황은 서서히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로 시정해 나가야 할 때가 왔고, 그런 의미의 발언이나 주장이 建築士誌 아닌 타 언론지들에게도 울어대야할 때가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당분간 타성으로 이어지는 관료주의는 급속히 사라지는 않는다고 보고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정당한 주장이나 의견을 두려워 말고 開陳해야 할 것이다. 협회의 기구는 회원의 증가로 비대해 간다. 기구가 비대해 되면 비대해 질수록 관청화 되는 것이다. 이 관청화 되는 것은 절대로 막아야 한다.

이때까지 말한 것은 마치 건설부를 성토했던 것 같이 들릴지 몰라도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다. 13대 대통령의 취임식 광경의 簡素하면서도 할 일은 다하는 검박한 모습이나 權威主義의 색채가 사그러져가는 것을 보았고 취임사 내용의 대통령의 信念化된 意志가 그러할진대 우리도 그 말에 순응해야 한다면 이 글에 쓴 말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자부하는 것이다. 이때까지 행정부가 해온 처방은 정신이상의 정신병 의사가 정신병 환자에 내린 처방이었던 것을 알았다. 졸속과 과장의 반복. 중국의 작가 魯迅의 수필 제목에 “來了” “라이라”라고 발음하는 왔다, 도래했다라는 의미인 來了. 무엇이 왔단말인가? 새시대가 왔다는 말이다. 民尊, 자유, 자율, 평화, 행복의 시대가 왔다는 것이다. 살다보면 이런 재미도 있어야지, 우리말고 집만 먹고 살다 죽을 순 없는 것이 아닌가. 건축계에는 建築士 자율과 자존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魯迅의 말대로 來了, 건축사의 금지와 발언의 시대가 來了다. 連帶의 명제는 공동의 운명을 가진 집단엔 더 없이 중요한 말이다. 폴랜드의 노사지도자 레프 바웬사의 Solitarinosk (連帶)는 공동운명의 폴랜드 노무자를 구해 내는 유일한 힘인 것이다. 우린 그 엄청난 무서웠던 시대에도 李承晩의 하야를 직언한 용기를 가진 일이 있었다. 대권을 거머쥔 자가 국민앞에 자존과 자율과 공평을 선언한 이 마당에 우리 건축사들은 건축사란 타이틀을 취득하는 제도인 建築士國家考試의 전 업무와 권한을 建築界에 돌려주고 우리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라는 외침을 왜 못할 것인가. 이제 곧 문화부가 문공부에서 분리 독립된다(그들은 약속했었다) 이제 곧 지방자치제가 실시될 것이다. (이것도 약속했었다) 그러면 건축사협회는 자율적인 連合체가 될 것이고 각 支部는 각 道の

協會가 될 것이다. 본부는 연합회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시간이야 걸리겠지만 반드시 그리 될 것으로 믿는다. 이때도 건축사 국가고시도 각도별이나 시별로 할 것이다. 이때까지 모든 일들이 中央集權式으로 행하여져 왔다. 습관화된 우리들의 의식구조에선 선뜻 실감이 나지 않는 일들이지만 필연코 그렇게 될 것이다. 때문에 우린 외치고 싶은 것이다. 더우기 공무원에게 특혜를 준다는 따위의 發案초차가 언어도단이다. 무슨 이유로 그들에게 특혜를 주어야 하는가? 일년간의 공무원들의 비위 건수가 발표된 적이 있다. 몇만건이라든가. 일년간에 전국의 비위건수도 기사화 된 적이 있다. 압도적으로 후자의 숫자가 많음을 보고 모두가 놀랐을지는 몰라도 전체 공무원의 수에서의 비위건수의 율과 전체 국민의 수와 비위건수의 율을 비교해 보면 새로운 생각이 들 것이다. 더우기 국민들의 비위건에는 대개의 경우 공무원이 관계되어 있다면 통계상 數의 장난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건축사들에게 합동이니 연서제니 해 가지고 1건의 위법 건축이 적발되면 연서된 3명이 위법 건수라고 계산해서 언제인가 서울에서만 건축사들의 위법 건수가 수천건이라고 신문에 발표한 그들이라면 이제 우리도 상대적으로 비위나 부정을 수로, 율로 내용을 발표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참으로 암흑의 날들이었다. 우리 건축사들로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들 손위에서 노는 것을 혹독하게 거부해야 할 것이다. 위대하지 못한 우리 보통사람들이 위대한 보통사람들이 하는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보아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우수가 지났으니 속담대로 대동강물도, 한강물도 풀려야 할 때인데, 왜 이렇게 화창한 봄날이 오는 것을 시샘이나 하듯이 을씨년스러운 하늘이여!! 그래도 봄은 반드시 온다. (完)